

최고의 블록버스터 우리.. 장비로.. 만든다

영 화 장 비 틈 새 시 장 공 락 하 는 ‘ 드 림 무 비 ’

작년 ‘실미도’와 ‘태극기 휘날리며’를 통해 전국 관객 동원 천만의 시대를 연 한국영화계. 이제 한국영화에서 할리우드를 능가하는 기술력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. 그러나 이 기술력은 대부분 미국·독일·일본 등 외국장비를 통해 만들어진다. 영화·영상 관련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드림무비의 이명일 대표는 앞으로 한국영화는 물론, 외국의 블록버스터영화까지 한국 영화장비의 시대를 열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있다.

드림무비를 이끄는 쌍두마차, 김기영 기술팀장(왼쪽)과 이명일 대표.

Q 드림무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?

A 기계공학도 마찬가지지만, 대학에서 이공계를 전공하면 사회진출 분야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언젠가 아버지가 권해 주신 <부자아빠, 가난한 아빠>라는 책을 읽고 나서 ‘진공을 살리면서 전혀 다른 분야를 개척할 수도 있겠다’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바꾸게 해준 첫 번째 멘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래서 모교인 동국대학교 제어공학실험실에 동지를 틀고 창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.

Q 영화·영상 장비를 창업 아이템으로 내세운 이유는?

A 처음에는 클레이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뼈대(아마추어)를 만들어 벤처창업대전에 참가했습니다. 그런데 그곳에서 영화 관련 장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 제 전공이 기계공학이고, 국내 영화장비 시장이 아직까지 크지 않아서 충분히 그 틈새시장을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작년엔 순수 저회 기술로 만든 영상 촬영용 미니 크레인(머큐리)을 가지고 벤처창업대전에 다시 한번 참여했습니다. 앞으로는 영화·영상장비 외에 사진촬영용 미니 크레인 등 사진장비 분야에도 진출해 볼 생각입니다.

Q 회사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인맥이나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할 텐데,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?

A 인맥이라는 것은 진심을 담아 만나면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창업관련 교육을 많이 찾아다닙니다. 회사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것 이외에 마케팅과 재무 같은 경영지식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20군데가 넘는 창업교육을 찾아다니다 보니 인맥은 자연스럽게 쌓이지더군요. 그리고 저희 회사의 리딩벤처기업인 코감 엔지니어링 홍지준 대표님도 많은 힘이 되어주십니다. 또 한 분은 저희 담당 교수이신 광문규 교수님입니다. 앞으로 꼭 성공하여 보답하고 싶습니다.

Q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?

A 아직은 너무 큰 목표이긴 하지만, 제 사업에서 성공하고 나면 국내에 큰 연구소를 만들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론에 치우치는 연구보다는 생산 기술력에 대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. 기계공학 쪽에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이미 세계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. 이제 그것들을 하드웨어적인 기술력으로 가공·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최고가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같은 맥락에서 전문적으로 공학도를 생산하는 대학도 설립하고 싶습니다. 공학과 경영능력은 물론이고 세계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, 그리고 생산현장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엔지니어들을 배출하는 것이 꿈입니다.